
**<제주 문화예술섬의 조성 전략> 관련
국외 사례 조사 보고서**

2016년 4월

문 순 덕 책임연구원

I. 조사 개요

1. 목적

-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자산을 축적해 왔음. 특히 니가타의 에치코즈마리는 예술이 농촌지역과 주민을 바꾸어 낸 성공 사례이며, 요코하마시는 지역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만들기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음. 또한 도쿄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예술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음.
- 이에 지역 발전에서 예술의 역할, 도시에서 예술의 육성, 시민의 예술 참여, 예술인의 육성 등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함.
- 따라서 제주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꾸어 가기 위하여 일본의 예술시설, 예술 공간, 주민의 예술참여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일정 및 대상

- 조사기간 : 2016년 3월 26(토) ~ 3월 31일(목) (5박 6일)
- 조사지역 : 일본 도쿄, 요코하마, 에치고즈마리(니가타)
- 세부 일정

일자	세부 일정	비고(방문)
3.26 (토)	도쿄 아트트라이앵글 답사 (국립신미술관, 모리미술관, 산토리미술관)	
3.27 (일)	도쿄 오페라시티아트갤러리 답사 니가타 도착	
3.28 (월)	에치코즈마리 답사	-에즈코치마리추진협의회(NPO)대표 대리 면담

3.29 (화)	도오카마치 답사 도쿄 도착	
3.30 (수)	요코하마 답사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	-요코하마시 문화관광국 창조도시추진과 공무원 면담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 관장 면담
3.31 (목)	도쿄 출발 김포공항 도착	

○ 조 사 자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위원

3. 주요 활동

○ 에치코츠마리 소재 대지의 예술제 NPO협회 대리대표, 직원 면담

- 에치고츠마리 '대지의 예술제' 개최 지역 답사

○ 요코하마시 문화관광국 창조도시추진과 담당 공무원,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 관장 면담

-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 답사

○ 도쿄지역 문화시설 답사

Ⅱ. 조사 방문기관 면담 자료 분석

1. 에치고츠마리지역(니가타)의 주요 내용

1) 개요

- 니가타 면적은 도쿄면적보다 넓은 760평방미터, 인구는 약 75,000명에 불과한 대표적인 '인구과소지역'으로 꼽힘. 더욱이 65세 인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노령화지역'임.
- 에치고츠마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청년층의 이농(탈농현상), 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와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위기를 지니고 있는 지역임.
- 에치고츠마리의 지역회생 프로젝트는 '뉴 니가타 마을 만들기'의 시작으로 1996년 '에치고츠마리 아트 네크리스 정비사업'을 펼치게 됨. 사업의 타겟을 '예술'로 정하고 그것의 성과인 '예술제'를 3년마다 개최하게 됨.

2) 주요 내용

- 도오카마치시는 일본에서도 가장 추운 곳이고, 자국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6개 지역의 통합에 따른 지역 재생 차원에서 '대지의 예술제'를 개최하게 됨. 이 예술제는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작하였고, 의외로 젊은층의 호응도가 높았음.
-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Echigo-Tsumari Art Triennale)'는 '대지의 예술제'로 불림. 특히 예술을 매개로 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그 매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그를 통해 지역회생의 길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에치고츠마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 예술이라는 가치를 부여함. 강, 개울이나 계단식 논 등 에치고츠마리의 광활한 대지를 활용하여 예술품들이 창작·설치됨.

- 대지의 예술제는 인간과 자연의 소통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모델이 됨. 즉 고향 산촌의 아름다움을 도시인들에게 부각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활력과 자신감을 심어줌.
- 대지의 예술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초대작가들이며, 작품 창작을 위해 에치고츠마리에 가서 단기·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작품을 완성함. 모든 작품에는 가급적이면 에치고츠마리의 전통, 생활 풍속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대지의 예술제는 3년마다 개최되는데 1회부터 설치된 작품은 200점 정도이고, 여기에 매회 출품작으로 200점을 추가 예술제 기간인 50일 동안 400개의 작품이 설치됨. 예술제가 끝나면 작가와 협의하여 200점은 철거되고, 나머지 200점은 그대로 두면서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음.
- 도오카마치시에서는 작가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거주 비용, 제작비용 등 일부 지원해 주고 있음.
 - 도오카마치시 소속으로 '대지의 예술제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이 조직이 중심이 되어 예술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대지의 예술제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토야마 식당을 들 수 있음. 이 식당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음식재료는 이 지역 생산물을 사용하고, 주민들이 전통적인 조리법을 전승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음.
-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논들이 있어서 '다나다뱅크제도'를 운영하여 농사지을 후원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지의 예술제를 시작할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이 예술성을 띠고 있음.



에치고츠마리-마즈다이에 있는 계단식 논
 <호시토게의 나라다>



계단식 논(타나다)에서의 대지예술 작품
 <러시아 작가 일리야오 에밀리아 카바코프>



대지의 예술제 안내문



사토야마필드뮤지엄
 <네덜란드건축가 그룹 MVRDV 작품>



빛의 집(James Turrell, 미국작가)

2. 요코하마지역의 주요 내용

1) 개요

- 요코하마시는 가나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이고, 경관이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며,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어서 인구가 350만 명을 상회함.
- 요코하마 개항 이후 약 150년간의 문화, 역사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요코하마 '브랜드'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개성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일본에서 잘 알려진 도시형 관광지임.
- 요코하마시는 2003년에 창조도시 정책을 시작하였는데, 그 한 축으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정책을 실험적으로 추진한 것이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임.
- 현재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가 들어선 곳은 제1은행 요코하마지점 건물을 재건축해서 사용하고 있음.
 - 원래는 현재 위치에서 반대편이 있었는데, 건물 외관만 지금 위치로 옮겨서 재건축했음.

2) 주요 내용

- 요코하마시는 직장과 주거공간이 일치하는 자립도시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와 상업부문이 주체가 되어 기능 강화를 꾀하고 동시에 문화예술,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도심의 마을만들기를 시도함.
- 요코하마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 Creativity Yokohama'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진흥, 경제진흥, 도시만들기의 각 분야의 정책을 융합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였음.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2004년 4월부터 시장 산하에 문화예술도시창조사업본부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도시 활성화를 추진함.
 - 2004년 6월 21일에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가 내각 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여, 하네다공항을 재확장하는 등 국제화를 지향하는 개항도시로서 역사와 문화, 워터프론트와 같은

요코하마의 매력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요코하마시가 지역재생계획으로 내건 세 가지 프로젝트 중 예술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창조적인 거점' 형성은 요코하마 구도심 속의 버려진 공간에 주목하여, 기존 시설물, 역사적 건축물, 낡은 창고, 빈 사무실 등을 유기적·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예술가들이 제작하고, 발표하고, 체류하는 3위 1체의 활동 거점을 시민들이나 NPO와 협동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였음. 요코하마시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장소가 조성됨.

① 미나토미라이 21(横浜みなとみらい21) 중앙지구

②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Yokohama Creative Center/YCC, ヨコハマ創造都市センター)

③ BankART Studio NYK

- 요코하마가 창조도시를 지향한 것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꾀한 측면이 있음. 그 이유는 1990년부터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장기간 불황에 빠지면서 요코하마지역에도 빈 사무실이 많아지면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됨. 이때 도시재생 방법으로 예술가들과 협조하면서 도시의 매력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요코하마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됨.
- 요코하마창조도시센터는 예술가들이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입주하여 창작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요코하마시가 이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초기에는 창조도시센터 건물 임대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었으며, 지금은 일부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즉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나, 점차 재정적 지원을 줄여가고 있음.
- 요코하마시가 창조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축을 보면 우선 정책적인 구상은 요코하마시 창조도시사업본부(현재 문화관광국)가 중심이 되고, 문화예술 시설에 따라 민간이나 NPO법인이 운영하고 있음.
- 요코하마시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때에 경관조례, 도시만들기 협의회 등 단계

별 심의 단계가 있어서 도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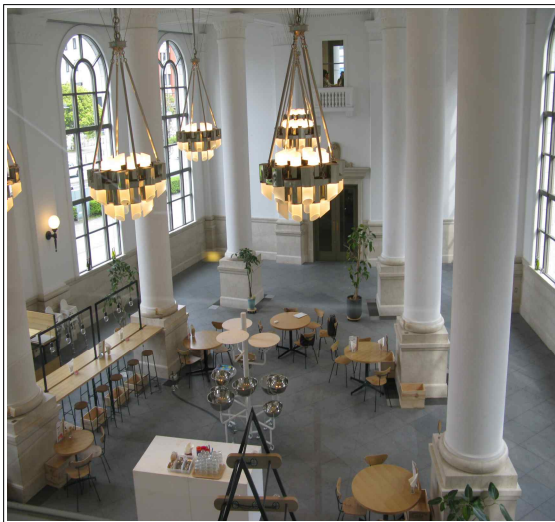
- 요코하마시는 창조도시를 만들면서 행정에서 예술가를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



요코하마 도시재생지역



요코하마 아카벤카 창고 전경



요코하마 창조센터 내부

3. 도쿄지역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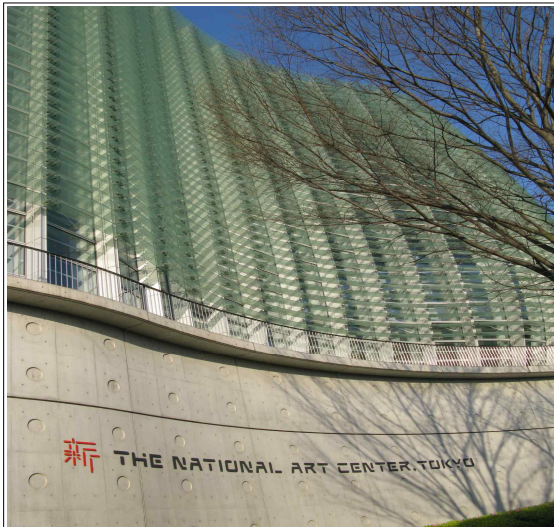
- 도쿄는 20세기 최고의 상업 도시에서 21세기 최고의 예술 도시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아트시티라고 할 수 있음.
- '롯데기 아트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3개의 미술관은 삼각형 모양으로 그럴 수 있게 도쿄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국립신미술관, 산토리미술관, 모리미술관 등이 속함.
 - 국립신미술관은 도쿄도 미나토구 롯본기 7-22-2에 위치함.
 - 산토리미술관은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9-7-4 미드타운 갤러리아 3층에 위치함.
 - 모리미술관은 도쿄도 미나토구 롯본기 6-10-1 롯본기힐즈 모리타워 53층에 위치함.
- 국립신미술관은 일본 최대의 전시 공간을 살려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산토리미술관은 '생활 속의 미'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이 목적에 맞는 전시를 하고 있으며, 도쿄 미드타운 내에 위치함. 모리미술관은 현대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 위 미술관들은 롯본기를 예술 콘텐츠로 채우는 것을 뛰어 넘어 사람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함. 또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도쿄 모리미술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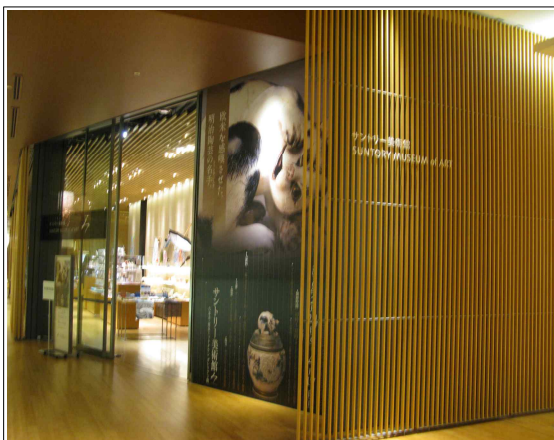
도쿄 모리미술관 전시실



도쿄 국립신미술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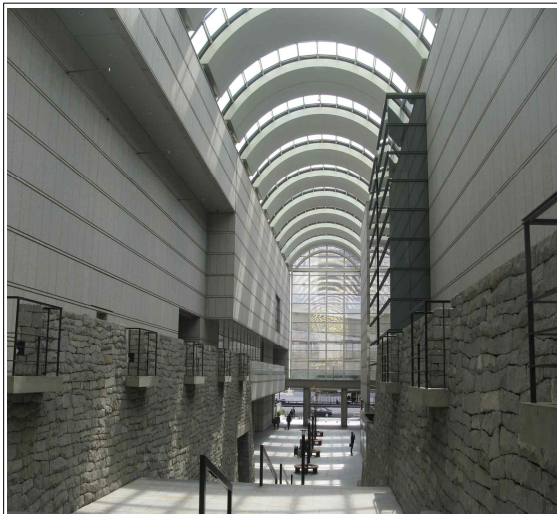


도쿄 국립신미술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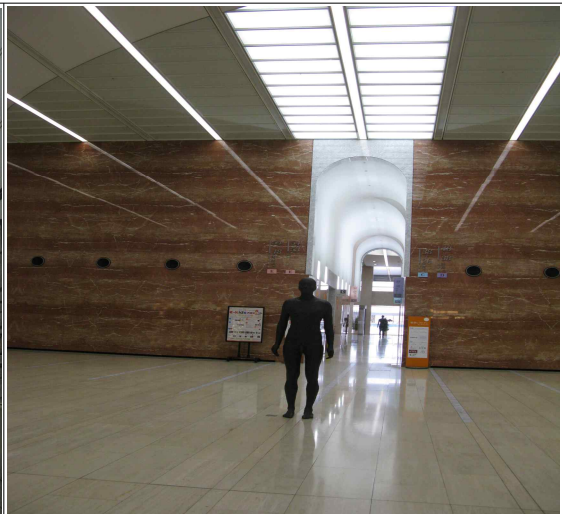


도쿄 산토리미술관 입구

- 도쿄에는 롯본기 아트 트라이앵글 이외에도 오페라시티아트갤러리가 유명함. 이 시설은 도쿄오페라시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콘서트홀, 리아시트홀, 미술관이 배치되어 있음.
-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신국립극장에서는 주로 연극과 무용이 공연되는 등 이들 지역은 음악, 미술, 공연, 오페라, 발레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화 되어 있음.
 - 오페라시티아트갤러리는 정부와 민간의 제휴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시설임. 대형콘서트홀, NTT인터커뮤니케이션센터, 신국립극장 등을 갖춘 본격적인 문화시설과 약 1만 명이 일하는 오피스빌딩. 레스토랑, 숭 등이 집결되어 있음.



도쿄 오페라아트시티갤러리



도쿄 오페라아트시티갤러리 내부

Ⅲ. 일본 사례 조사 결과 시사점

1. 문화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일본 도쿄에 있는 롯본기 아트 트라이앵글은 ‘국립신미술관, 산토리미술관, 모리미술관’ 등을 종합적으로 지칭한 용어임.
- 이 미술관들은 도심 속 빌딩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예술과 쇼핑, 음식 공간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미술관(박물관 등) 시설이 도심과 분리되어 넓은 공간을 배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도쿄 오페라시티아트갤러리 역시 도심 속에 배치되어 있으며, 내부는 갤러리, 웨딩홀, 공연장, 쇼핑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도쿄 문화예술 시설의 소재지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보면, 향후 제주 지역에서도 도심지 내에 빌딩을 신축할 경우 일정 공간을 아트 갤러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 중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주민과 예술가의 협력 체계 구축

- 에치고츠마리는 농촌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쇠락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예술제를 개최하게 됨.
 - 에치고츠마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마츠다이, 도오카마치, 가와나시마치, 마츠노야마, 나카사토, 쓰나’ 등 6개 마을이 통합되어 불리게 됨.
- 에치고츠마리가 행정구역상 통합지역이 되면서 주민들의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과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대지의 예술제’를 개최하게 됨.

- 2000년 1회를 시작으로 2015년 6회째까지 대지의 예술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한 회 개최 시에 200점의 작품이 새롭게 제작·설치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작품 관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음.
- 2000년 대지의 예술제를 시작하고 나서 2003년에 에츠고츠마리 사토야마 미술관이 개관되었음. 이는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콘텐츠를 채우려는 한국의 현실과 다른 점임. 즉 작품이 많이 모이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그 시점에서 미술관을 만들었음. 이곳은 원래 직물공장이었는데 미술관으로 건립하여 산업시설을 예술시설로 변경한 사례에 속함.
- 대지의 예술제가 성공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술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을 그대로 보여준 것,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지한 것이라 봄. 이런 지역 특성에다 대지의 예술제가 더하여서 마을이 생동감을 회복하게 되고 마을만들기도 성공했다고 봄.
- 대지의 예술제 개최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 변화나 발전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고령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커다란 목표가 생겼음. 즉 3년마다 개최되는 대지의 예술제를 맞이하려면 최소한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내야 하고, 마을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으며, 이 점이 마을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대지의 예술제는 지역민들의 삶의 의식과 목표를 바꾸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3.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

- 대지의 예술제는 지역 재생과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됨. 이에 제주지역이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예술가, 행정기관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요코하마 도시재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전통,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중요함. 즉 지역의 문화자원이 일

부라도 남아있어야 이를 복원하고,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이 보존과 개발의 양 날개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 경관, 디자인 등 시설 분야에도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